

통권 87호

독립정신



권두언_4·13 총선 결과를 놓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전망한다

특집1_한반도 평화협정의 길을 찾아서

특집2_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초등 사회(역사)교과서 비교 분석

100년의 시간/그때와 오늘(3)_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100년 전보다 안전한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9)_신앙을 내팽개친 친일 종교인들

청년독립군이 간다!(2)_1980년 5월, 2016년 5월

기고_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건

2016년
5, 6월

지청천(池青天, 1888~1957)

대전자령의 공격은 2천만대한인민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의
수천, 수만의 영혼이 보우하여 주는 피의 사자이니
계군은 단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우라.

- 1933년 중국 대전자령 전투에 앞서서



지청천(池青天) :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한국독립당 창당, 대동청년단 단장, 국회의원 (위치 : 독립기념관 경내)

지청천(池青天)



호는 백산(白山), 일명 이청천이라고도 하며 서울에서 태어났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보병중위로 있다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 교관, 1920년 서로군정서 교관이 되어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1920년 가을 일제가 소위 재만 독립군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 합류하였다. 일본



총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지청천 장군과 김구 선생

군의 대대적인 보복을 피해 150명의 병력을 이끌고 안도현 밀산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여단장에 취임했다. 1922년 흑하사변으로 자유시에서 러시아 혁명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석방되어 만주로 왔다. 1925년 정의부를 조직하여 군사위원장 겸 사령장이 되었다. 1930년 한국독립당 군사위원장,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1932년 동아혈성동맹의 간부로서 각지의 항일 단체 규합에 힘썼다. 1933년 낙양군관학교 한인반 총책을 맡았고,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의 군사 작전 준비를 도왔다. 1946년 환국하여 대동청년단장, 제헌의원 및 제2대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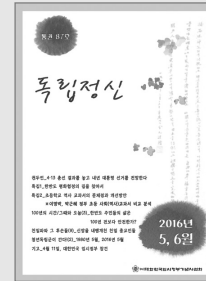
앞줄 가운데가 지청천 장군,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엄항섭 선생

독립정신

2016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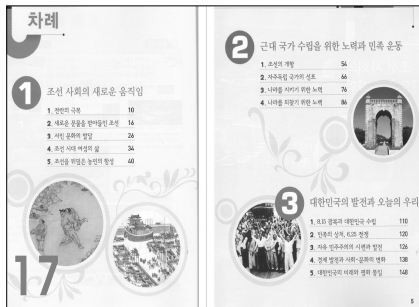
통권 87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04 권두언_
4·13 총선 결과를 놓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전망한다
| 정해구

08 특집 1 _
한반도 평화협정의 길을 찾아서
| 정옥식

15 특집 2 _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초등 사회(역사)교과서 비교 분석
| 배성호

29 100년의 시간_그때와 오늘(3)
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100년 전보다 안전한가?
| 김용흠

35 친일파와 그 후손들(9)_
신앙을 내팽개친 친일 종교인들
| 최광웅

40 청년독립군이 간대! _ (2)
1980년 5월, 2016년 5월
| 성희연

44 기고 _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건
| 이만열

47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
감자골 양양의 민족 교육자 ‘조화벽’
| 이윤옥

49 영화읽기_
영화 <귀향>, 과거에 대한 씩김굿과 내일을 위한 대화
| 이두희

54 임정서가_
백년편지 1.
거리에서 국정 교과서를 묻다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 악인열전
| 편집부

66 독립정신 이모저모
제97주년 3·1절 계기 김경순 선생 등 독립유공자 65명 포상



4·13 총선 결과를 놓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전망한다



정 해 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17년 내년 12월에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수 세력이 계속 집권한다면 그 동안 심화되어 왔던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하거나 정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년 대선을 통해 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사회 양극화 역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해 4월 13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이하 4·13총선)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그것이 정권교체 여부가 판가름되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우선 의석수의 경우 4·13 총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지역구 의석	105	110	25	2	11
비례 의석	17	13	13	4	
전체 의석	122	123	38	6	11

‘새누리당의 참패,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국민의당의 대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4·13총선의 이 같은 결과는 총선 직전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의 지위를 빼앗길 만큼 대패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영남에서도 적지 않은 의석을 얻었다. 한편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임에도 호남을 석권하며 38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의석수에서의 이 같은 결과는 득표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비례 의석을 뽑는 정당투표의 경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2당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투표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지지의 상당수가 그리고 새누리당 지역구 지지의 일부가 국민의당 지지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아래의 표는 정당투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의 일부가 정의당으로 옮겨갔음을 알려주고 있다.

구 분	유효투표수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지역구 득표수	24,002,420 100%	9,200,690 38.33%	8,881,369 37.00%	3,565,451 14.85%	395,357 1.64%	1,683,264 7.01%
정당투표 득표수	23,760,977 100%	7,960,272 33.50%	6,069,744 25.54%	6,355,572 26.74%	1,719,891 7.23%	

사실 총선 전에는 야권 분열로 인해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대승 속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실정, 특히 경제 무능이 새누리당 참패의 가장 일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양극화가 누적적으로 심화된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취임 이후 양극화의 해결은커녕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

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야권의 분열에 안이해진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 간에 막장드라마 같은 공천파동까지 벌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승리가 그들 자신의 성과와 능력인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친노 주류와 비노 비주류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그것은 마침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의 분당으로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전과 국민의당의 승리는 그들 자신의 성과와 능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 참패에 따른 반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새누리당의 참패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된 4·13총선의 결과는 여당과 야권의 대비로만 볼 때 내년 대선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할 경우 야권의 의석수는 167석(55.7%)에 달하고, 야권의 지역구 득표수는 12,842,177표(53.5%)에, 나아가 야권의 정당투표 득표수는 14,145,207표(59.5%)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을 생각하면 내년 대선의 승리가 그리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고 여기에 양 당이 각각 상당 정도의 지지를 얻을 경우, 어느 정당도 새누리당을 이기기는 힘들다. 이를테면 이번 총선의 정당투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내년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33.50%의 지지를 얻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25.54%와 26.74%의 지를 얻는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야권 전체의 득표수가 과반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실패한 경험이 없지 않다. 6월 항쟁 직후 치러진 1987년의 제13대 대선이 바로 그 경우다.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36.6%,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는 28%,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27%,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는 8.1%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 결과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총 55%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민주진영은 정권교체에 실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야권 분열에 기인하는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야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경우이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

의당의 양 당 중 한 당에 지지가 일방적으로 몰리는 경우이다. 그럼으로써 양 당 중 한 당 후보가 1위 득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야권 후보 간 단일화를 이루는 경우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두 대안의 실현 가능성이다. 전자의 경우 상황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사가 마냥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주장처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채택된다면 위와 같은 수고는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 대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철수 대표의 결선투표제 역시 당장은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4·13총선의 결과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는 참패를, 그리고 야권에게는 승리를 안김으로써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매우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이제 야권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그 질문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길을 찾아서



정 옥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 들어가며

평화협정 관련해 남북한 사이에 구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다시 북미 평화협정을 들고 나왔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평화협정의 추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조미(북미)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오랜 논란 끝에 남북미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로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다시 북미로 한정하는 듯한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태도 역시 큰 문제가 있다. 평화협정 체결이나 평화체제 구축은 아예 정책 목표에서 사라졌다.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비핵화 문제도 북한이 먼저 무릎 꿇고 나오라

는 태도이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에만 몰두하고 있다.

남북한의 이러한 퇴행적인 움직임이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자,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북미 평화협정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자 남한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비핵화 초점을 흐리려고 한다거나 전형적인 통미봉남으로 비난하면서 평화협정 논의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이 회심의 카드를 던졌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이후 관련 당사국들의 반응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며 대북 제재와 봉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북한은 중국의 제안에 대해 현재(5월 3일)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나서 연일 '핵 억제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의에선 중국의 제안에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한미일 삼각 공조를 중시한다.

이러한 와중에 일각에선 미중간의 타협에 의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회의적이다. 우선 미중이 타협에 도달하더라도 핵심적인 당사국인 남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비핵화는 북한의 결단일, 평화협정은 한국의 결심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가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상호 적개심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평화협정을 논의할 처지도 못 된다. 탐색적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미 평화협정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화 없는 대결'은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지속될 공산이 크다. 우선 남북대화의 의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남북대화를 간헐적으로 이어주었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작년 남북 합의 불발로 그 맥이 거의 끊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마저 중단시킨 상황이다.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는데 그 현실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위축된 셈이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하면 한반도 정세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미 있는 신호가 워싱턴에 전해지지 않으면 힐러리 클린턴의 대북정책도 '전략적 인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풀자는 제안은 한국 정부가 먼저 제기했어야 했다. 정부가 마다한다면 야권이 강하게 제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건설적인 제안을 일축했고, 야당은 가타부타 거의 말이 없다. 이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관련국들 협상 테이블에서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정치외교 담론에서도 사라진지 오래이다.

정리하자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점점 찾기는 두 의제 사이의 교집합을 만들어 키우는 것 못지않게,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겠다는 행위자가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의지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야당에게도 각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본 글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2.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평화체제에 포함시키자

본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평화체제라는 커다란 용광로에 녹여내자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을 비롯해 지금까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혹은 평화체제)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9.19 공동성명에서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때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것인지가 모호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논란도 거뒀다.

가령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평화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 시점을 “비핵화 완료 이후”로 못 박았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평화협정의 사전단계이면서 비핵화에 추동력 부여하고자 ‘중진 선언’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중진 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한편 오바

마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대규모의 경제 지원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혼선은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와의 관계도 모호했고, 평화협정이든 평화체제든 이를 비핵화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도 불확실했던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여기서 1차적인 관건은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관계이다. 협정을 체제와 동일시하는지, 아니면 협정을 체제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협정 자체를 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리가 정전협정을 정전체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처럼, 평화협정 역시 평화체제의 중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평화협정을 평화체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다면, 핵심적인 문제, 즉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비핵화 역시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라는 개념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면 단계적 비핵화를 상정할 수 있고, 핵동결을 비핵화의 중단 단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비핵화와 평화협정 사이의 교집합 찾기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는 평화체제라는 큰 집합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부분집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3. 평화체제로 가는 과도기로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추진하자

평화체제는 정전체제의 대체물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상호간의 주권 존중 및 불가침을 약속할 평화협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전체제의 핵심은 강력한 군사력 및 준비 태세에 기반을 둔 전쟁 억제 및 억제 실패시 승전을 추구하는 일방적 안보 추구이다. 그렇다면 평화체제는 일방적 안보 추구에서 협력 및 공동 안보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호간의 적대 관계 청산뿐만 아니라 군사적 억제력의 폐기나 하향 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평화체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평화협정과 핵동결을 평화체제로 가는 중대한 과도기로 상정할 수 있다. 물론 핵동결은 비핵화 공약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세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핵동결 ‘조치’와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핵동결 조치 문제는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은 4자 평화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동결은 이른바 ‘3 No’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적 증강’을 차단하기 위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No more), ‘질적 향상’을 차단할 목적으로 추가 핵실험 및 위성 발사를 포함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No better), 그리고 핵무기 및 기술과 물질 해외 이전 중단 약속 유지(No export)이다. 평화협정 체결 시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동결 감시단이 영변으로 복귀해 동결 상태 확인을 마친 직후로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 조항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평화협정 논의가 비핵화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중요한 일부라는 주장이 법적·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평화협정에 명시되어야 할 비핵화 조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의 핵 폐기 대상, 방식,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조소한 NPT 복귀 의사 재천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온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남한의 비핵화 공약 준수, 미국의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 군사훈련에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반입 금지, 북핵 폐기 완료시 미국의 핵우산 철수 등의 포함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협정을 ‘기본 협정(basic treaty)+추가협정(additional protocol)’ 방식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 온 여러 조약 체결 방식과 흡사한 것이다. 상호 주권 존중,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상호 불가침,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방안,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원칙적이고 합의 가능한 항목들로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북방한계선(NLL), 유엔사와 주한미군, 군축 문제, 평화체제 관리기구 구성과 운용과 같은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부속 합의서’에 담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핵심 취지는 핵동결은 시급한 과제인 반

면에, 평화협정 협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4. 북핵이 존재론적 위협이라면

정말로 북핵이 한국에게 ‘존재론적인 위협’이라면 우리는 이에 걸맞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단, 그 비상한 각오가 존재론적인 위협을 키우거나 그 위협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안적인 각오는 지금까지 제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데에 있다. 그건 바로 북한에게 핵에 의한 안보가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를 제시하면서 대담판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 한국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신뢰구축 등을 망라한다. 뻔한 얘기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이 이 길을 제대로 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길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본 적은 있었다. 먼저 1999-2000년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 공조로 만들어진 페리 프로세스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미국의 정권교체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2007-2008년에도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미일이 3단계에서 다루기로 했던 북핵 검증을 2단계로 가져오면서 유실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흡수통일론에 사로잡힌 탓이 컸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북핵은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괴물처럼 커져버렸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무장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짜고 있어 비핵화를 유도하기가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포기해도 안 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이다.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는 평화와 통일, 한반도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김정은의 전략적 판단에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통의 크기를 키워 북한의 굴복을 유도하려는 방식이었다. 이건 실패로 끝났다.

이제는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 핵 포기를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걸 결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열거한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가 핵심이다. 또한 이걸 북한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 모두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먼저 북핵 실험이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자세가 필요하다. ‘강 대 강’의 대결보다는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핵 실험을 이유로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나라의 ‘군사’ 공조가 아니라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외교’ 공조이다.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 연대를 통해 북한과의 대담판 틀을 짜야 한다. 그리고 8년째 산소마스크를 끼고 있는 6자회담의 조건 없는 재개와 9.19 공동성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미중 4자간 평화포럼의 시동도 걸어야 한다.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 성 호
역사교육연구소

1. 들어가며

최근 화제가 되는 책이 있다. 바로 역사 교과서이다. 사실 교과서는 여러모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원칙에 충실한 것을 빗댄 표현으로 ‘교과서’ 적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교과서에 대한 공신력은 크다.

그런데 최근 역사 교과서 특히,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초등 역사 교과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역설적으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어떤 역사를 배우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더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자.

2. 실제 교과서 살펴보기

① 교과서 구성 체제

초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은 5학년 2학기과 6학년 1학기 사회 시간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때 핵심은 바로 교과서다. 교과서 체계 및 내용 구성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의 역사를,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서는 조선후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 구성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시대별로 분량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사실 초등 사회교과서의 역사 영역은 시대에 따라 총 6개 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단원 별 제목	시대별 서술 분량
	초등 사회(5-2/6-1)
1.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74
2.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40
3.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54
1.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44
2.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56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54
총 분량	322

6개 단원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서술되어야 하는데 근현대사의 비중이 적다. 얼핏 보면 단원별 구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다. 6학년 1학기 2단원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를 다룬 4주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6학년 1학기 교과서 총 164쪽의 분량 중 겨우 16쪽으로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적은 분량으로 인해 독립운동을 일구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소중한 역사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근현대사 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세계 역사 교육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발 딛고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구어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교과서 구성은 수업을 열어가는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단원 및 주제 구성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차례	
1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1. 전란의 극복	10
2.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	16
3. 서민 문화의 발달	26
4. 조선 시대 여성의 삶	34
5.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	40
2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1. 조선의 개항	54
2. 자주독립 국가의 선포	66
3.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76
4.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86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110
2. 민족의 상처, 6.25 전쟁	120
3.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126
4.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138
5.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 통일	148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역사)교과서 차례 부분

② 교과서 내용

가. ‘대한민국 역사’ 바로 읽기

초등 역사 교과서 내용 중 눈여겨 볼 점이 있다.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헌법 전문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교과서에서도 118쪽에 제헌 헌법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시작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다. 하지만 110쪽에 제시된 1주제 제목 ‘8.15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거되는 크나큰 문제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건국절 논란이다. 이 점에서 교과서 단원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교과서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실제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있

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우리 민족은 나라 안락에서 독립을 위해 기울인 값진 노력과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광복 후 민족 지도자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통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8.15 광복을 이루었으며, 왜 분단되었을까?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을까?

○ 광복을 맞이하여 환호하는 사람들

110
◎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제헌 국회는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에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 제헌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산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북한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국제 연합의 결정을 거부하고 최고 인민 회의를 구성하였고, 1948년 9월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였다.

1948년 12월, 국제 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제헌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은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948년 9월 ~

○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승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118
◎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2007사회(역사)교과서
(2011년 발행-이명박 정부)

2009사회(역사)교과서 실험본
(2014년 실험본-박근혜 정부)

2009사회(역사) 최종본
(2016년 발행-박근혜 정부)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제헌 국회가 선출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선거였다.

그해 7월 17일에 제헌 국회가 제헌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어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국회 의원들은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1948년 7월 17일(제헌절), 국회는 헌법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해 8월 15일에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는 1948년 9월에 최고 인민 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을 공포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남한과 북한에는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1948년 12월, 국제 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통일 정부가 수립되기 위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94

는데,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점은 여러모로 문제가 크다.

(6)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8·15 광복에서 현재까지 분단과 전쟁 등 시련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온 과정을 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민주화와 경제 발전, 문화 성장이 가능하였음을 이해하고, 이를 궁지로 삼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①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광복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기본적 역사 사실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부분을 지정한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위 분석 자료는 현재 초등 교과서뿐 아니라 향후 편찬되어 나올 국정 중등 교과서에서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 1) 현재 초등 사회교과서 역사 영역은 2011개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기본 바탕이 된다. 교과서 집필은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 상 제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를 뺀 것은 문제가 있다.

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읽기

독립운동 서술에서도 제대로 살펴볼 지점이 있다. 우선 앞서 제시한 바처럼 기본적인 분량의 문제다. 현재 분량은 너무 적어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실제 독립운동의 여러 의미들을 소개하기는커녕 대표적 독립 운동도 다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풀어나가는 것도 종합적인 이해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 경과, 결과, 의의 등의 도식적 제시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살펴봐야 할 점들을 놓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오늘날 그 뜻을 이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점들은 최근 펼쳐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별 사진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꿨던 나라 그리고 3년 후면 다가 올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번 사진전 제목처럼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 중차대한 의미들이 있다. 이는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되 살펴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18•독립정신

5월·6월호 •19

교과서 논란이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과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과 관점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시작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고 또, 적정한 분량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자 과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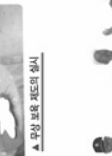
국정교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할 수 있지만 세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드문 경우다.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정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역사를 하나의 해석으로만 살피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무수히 많은 해석의 여지를 없앤 채 그저 단 하나만으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역사 본령의 정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주역, 노동자들이 사라졌다.

경제발전의 주역, 노동자들이 사라졌다.	2009사회(역사) 교과서 실험본 (2014년 발행-박근혜 정부)	2009사회(역사) 교과서 실험본 (2016년 발행-박근혜 정부)
경제발전의 주역, 노동자들이 사라졌다. 2007사회(역사) 교과서 (2011년 발행-이명박 정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된 숨은 주역들 ● 독일에 피간된 공부와 간호사들 후진 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1963년, 247명의 공부가 처음 독일에 도착하였다. 9주 34년간의 공부를 마친 뒤, 1977년까지 약 8000명의 공부가 탄광에서 일하였다. 또한 1966년부터 1997년까지 12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독일의 병원에 파견되어 환자들을 돌보았다. 공부와 간호사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여 우리 나라에 송금한 돈은 가족들의 생계와 학비로 쓰였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 중동의 모래바람에 맞선 노동자들 1975년부터 2006년 건설 회사가 중동의 건설 공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사하라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린 리버아 특수로 공사와 관련한 고도의 기술과 기술을 해야 이루어 낸 이렇듯의 카툰 등 공사들은 모두 세계 건설사에 기록될 만한 대규모 공사였다. 1970, 80년대 중동으로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은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그마한 가족을 위해 출근하고 그처럼 노력한 공장의 일가들이 되었다. ○ 중동의 모래바람에 맞선 노동자들 ○ 리버아 특수로 벌자 사막과 황무지 풍경 외환 위기의 발생 원인과 극복 과정을 찾아봅시다.	자신 이야기 근대사 우리나라는 조국 만국에, 친구 거점에 부족함 없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집과 도둑이 피로하였고, 집을 유기를 전염에서 나라 전부가 황폐했다. 그제야도 친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기고 나라를 부흥시켜 만든 것은 장래의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이다. 6.25 전쟁 이후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사랑과 힘이 깃든 나라로 만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독일사막에서 파견된 약 8000여 명의 공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그마한 가족을 위해 출근하고 그처럼 노력한 공장의 일가들이 되었다. ○ 중동의 모래바람에 맞선 노동자들 ○ 리버아 특수로 벌자 외환 위기의 발생 원인과 극복 과정을 찾아봅시다.	(통째로 사라짐) 4.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의 변화, 159

자화자찬 “무상보육” 도 사라짐

2007사회(역사)교과서 (2011년 발행-이명박 정부)	2009사회(역사)교과서 실험본 (2014년 실험본-박근혜 정부)	2009사회(역사)교과서 최종본 (2016년 발행-박근혜 정부)
남북간의 평화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정착은 남북한은 물론 세계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교 육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는 하나의 마을처럼 움직이는 "지구촌"이 되었다. 인터넷과 통신 위성은 각국의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는 점점 같은 문화를 함께 즐기고 있다. 긴장한 세계화는 여러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존중되고 보일 때 이루어진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사흘 동안 한국 역사 100년 ○ 이틀간 100년 한국 역사 100년 사흘 동안 한국 역사 100년 이틀간 100년 한국 역사 100년 대통령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생각해 봅시다.	정부는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비용을 지원해 주며, 보육 시설을 늘리는 등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권리가 더욱 중시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향상되었다.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국제결혼이 늘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 육아 비용 지원 ○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변화 ○ 평균 수명의 연장 204년 2014년 기준 평균 수명 남자 78.4세, 여자 82.8세 2044년 기준 평균 수명 남자 84.4세, 여자 88.8세	정부는 국민이 저렴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비용을 지원해 주며, 보육 시설을 늘리는 등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권리가 더욱 중시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향상되었다.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국제결혼이 늘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 육아 비용 지원 ○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변화 ○ 평균 수명의 연장 204년 2014년 기준 평균 수명 남자 78.4세, 여자 82.8세 2044년 기준 평균 수명 남자 84.4세, 여자 88.8세

130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빈부의 격차를 슬쩍 삭제하다.

2007사회(역사)교과서 (2011년 발행-이명박 정부)	2009사회(역사)교과서 실험본 (2014년 실험본-박근혜 정부)	2009사회(역사)교과서 최종본 (2016년 발행-박근혜 정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환경이 파괴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우리는 모두의 삶을 보장해 주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경제 발전으로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다름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 문제, 농촌 문제, 환경 문제, 빈부 격차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편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 문제, 농촌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편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162 • 8.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날의 우리

146 • 8.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날의 우리

5월 · 6월호 · 25

5월 · 6월호 · 25

5월 · 6월호 · 25

5월 · 6월호 · 25

특집 2 -

특집 2 -

특집 2 -

특집 2 -

5.18 민주화 운동, ‘발포’ 도, ‘계엄군’ 도 없다.

2009사회(역사)교과서 (2016년 발행-박근혜 정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주의의 화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오.18 민주화 운동,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오.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에 새겨 나가기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1980년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찾아봅시다.

유신 헌법에 따른 정치가 사실상 끝나자 국민들은 오랫동안 버티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12.12 사태, 1979년).

1980년 초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대도시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주의의 화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오.18 민주화 운동,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오.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에 새겨 나가기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1980년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찾아봅시다.

유신 헌법에 따른 정치가 사실상 끝나자 국민들은 오랫동안 버티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12.12 사태, 1979년).

1980년 초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대도시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 출처 : 역사교육연대 국정 초등 사회교과서 분석 보도자료 (2016. 2. 29)

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100년 전보다 안전한가?

김 옹 흘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우리는 학창시절에 19세기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당시 지배층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그 시기를 대하면서 드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의 지배층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19세기는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완수한 영국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이에 뒤질세라 프랑스와 독일이 산업혁명을 거쳐서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으며,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19세기 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차지할 식민지가 고갈되면서 이들 사이에서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였고, 결국 20세기 들어서

28•독립정신

5월 · 6월호 • 29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이 무력으로 조선을 강탈한 것은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편승하여 저질러진 일이었다.

한반도에서는 청나라의 전통적 지배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가 도전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배타적 지배권을 획득하자, 결국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지배층은 친청파와 친일파, 그리고 친러파와 친미파 등으로 분열되어 일관성 있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결국 일본에게 강압적으로 국권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였다.

무엇보다도 당시 고종을 비롯한 일부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청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1894년에는 동학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진압하기 위해 청국 군대에 의지하려다가 일본군을 불러들여 이 땅을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로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기 위해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지배층은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 역사에 교훈으로 남겼다.

지금쯤은 어떤가? 21세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하고, 한국을 그 전초 기지로 삼으려 하는데,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려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일본의 해양 세력과 중국·러시아의 대륙 세력이 다시 한 번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열강 가운데 어느 한 편에 치우쳐서는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열강의 의도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슬기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100년 전과 다른 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열강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생존을 확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이것은 잘못된 선택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한국의 지배층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냐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의 생존에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여기에는 압박과 협상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북한이 시도한 작년의 핵 실험과 올 초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미국의 주도 아래 국제사회는 압박 전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마도 압박 전략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으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이래 반복된 지금까지의 학습 경험으로 보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압박 전략을 주도하는 세력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을 강행하는 저변에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깔려 있는 듯하다.

과연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한반도 주민들은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시아 지역을 두고 벌이는 패권 경쟁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지역이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되면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아마도 한반도를 무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선 말기 청일전쟁보다 훨씬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0만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와중에서 남한 지역 경제가 온전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난민이 되어 남한으로 몰려들면 남한 경제가 궤멸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다. 현대의 발달된 무기 체계에 비추어 보아 어떤 형태의 전쟁도 한반도 주민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반도 주민 전체의 생존을 불모로 삼아 벌이는 어떤 정책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그 와중에 혹시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조선 말기의 지배층보다 전쟁을 방조한 현재 지배층의 무지와 무능, 무기력을 더욱 혹독하게 질타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통계를 감안하면 이것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될 것이다. 조선 말기에는 경제 상황 자체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였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는 막대한 부를 쌓아놓고도 전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을 막지 못했다면 누가 그들을 변론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압박 정책이 가진 위험성과 비효율성, 비현실성에 비한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은 폭넓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이 처한 경제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그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몇 년도 안 된 개성 공단의 경험이 입증하고도 남는다.

북한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현재 남한 경제 역시 저성장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극화와 청년 실업으로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단어가 현실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이처럼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획득한 자금으로 핵무기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사실 여부도 문제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북한과 그런 가능성을 현실화할 정도의 경제 협력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대대적으로, 그리고 '광폭'으로 이루어질수록 북한 정권이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북한 정권에 이윤 몇 톨 남기는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다. 남한이 성취한 그간의 경제적 성취 효과가 북한 주민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되면 북한 체제를 이완시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다수 북한 주민들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그리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북한에만 멈추지 않는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가스를 한국에 판매하지 못해 안달이 난지 오래 되었다. 시베리아에서 육로로 북한을 거쳐서 남한으로 송유관이 연결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그만두고 일각에서 말하는 북한의 침략 위협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송유관의 안전 여부 그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남한에 대한 정치적 협상 카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면 남한을 침략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송유관의 안전 확보 여부는 북한의 태도를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므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남한이 꺼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댓가는 지불해도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을 거쳐서 중국과는 만주 개발을, 러시아와는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하게 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유럽과 연결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동북아시아 차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아마도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만주와 시베리아를 두고 한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 관계로 얽히게 되면 현재와 같이 경직된 북한 체제는 자연스럽게 붕괴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핵무기 개발을 할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만주와 시베리아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20세기 중동 진출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두고 전개되는 대부분의 논쟁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며, 단숨에 세계 5위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남북 통일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다시 작동하여 양극화는 해소되고 청년들은 직장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처럼 돈 몇 톨 더 벌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어지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 전통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모델을 창출하여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염원했던 문화국가가 도래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은 위험하고, 협상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데, 현 집권층은 협상을 버리고 위험한 압박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개성 공단을 철수한 것이 북한에 얼마나 압박이 되는지 회의적인 시각은 많은데, 남한의 관련 당사자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국가가 자국 국민의 삶을 이처럼 유린하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들여 오겠다고까지 나서고 있다. 사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사드가 남한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은 미국 무기 전문가들도 인정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을 현재 우리나라가 상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고도 중국과의 무역이 지금처럼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지와 억지에 다름 아니다. 지금처럼 수출이 감소하여 한국 자본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들면 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앉게 될지 계산이라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 다수의 삶과 직결된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결정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현 집권층의 이러한 대응이 조선 말기에 동학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기 위해 청국 군대를 끌어들었다가 오히려 일본군을 불러들여 청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자국을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가 사드 배치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남한의 현 집권층은 유사 이래 가장 자주성이 없는 정권으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사실 미국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한국의 대북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도 있었다. 설사 그러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여 대북 협상에 나서게 하는 것이 10대 경제 강국에 걸맞은 외교이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바람직한 미래를 여는 합리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열강의 이익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주변 열강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반도 전체 주민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대북 적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 군사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세력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해방 70년을 넘긴 현재까지도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가 남긴 잔재를 충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친일파 문제를 거론하려면 아직도 유형 무형의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군 위안부 문제에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현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민지 잔재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인적 물적 차원을 넘어서 훨씬 심각한 차원이 존재한다. 국가로 표상되는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역량의 결핍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아무리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군사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늘 불안에 떨면서 자국의 안전을 외세에 의존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1세기를 맞이하여 한반도 주민들 앞에는 전쟁을 통한 절멸이나, 평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이냐의 갈림길이 가로 놓여 있다. 논리적으로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 유린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주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평화와 공존, 번영의 미래는 실현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인심은 위태롭고[人心惟危], 도심은 미약하다[道心惟微]’는 『서경(書經)』의 말은 혹시 이러한 현실을 지칭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성인(聖人)이 제시한 ‘유정유일(惟精惟一) 윤집궐중(允集厥中)’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 오늘날도 보수는 자기모순에 빠져 국가와 민족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데, 진보는 미약하여 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신앙을 내팽개친 친일 종교인들



최 광 응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일본 제국의회 의원 자리에까지 오른 박상준은 유림을 대표하는 친일파이다.

박상준은 창씨개명이 朴澤相駿이다. 1876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나 강동군수와 순천군수를 거쳐 한일병탄 이후 서서히 친일파로 돌아선다. 그는 1919년 3·1 운동 무렵부터 승진을 거듭해 평안남도 참여관(1921), 강원도 지사(1926), 함경북도 지사(1927), 황해도 지사(1928)를 거쳐 1935년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는 등 친일에 앞장섰다. 이를 계기로 1937년 초 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그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8월 총독부 학무국이 편성한 강연2반에 속해 안인식 명륜학원 강사와 함께 관제 강연활동을 벌였다. 그의 처도 1937년 8월 21일 애국금차회의 일원으로서 현금 140원을 국방현금으로 납부했다. 1939년에도 그는 국민정신충동원연맹이 주관한 전국 순회강연에 강사로 또 다시 경상남도 지역에서 친일 연설을 했다.

1939년부터 그는 성균관을 개칭한 식민지 교육기관인 경학원의 대제학에 임명되어 유교의 친일화에도 앞장섰다. 그해 12월 1일 경학원을 대표하여 조선유도연합회 결성식에 참여한 박상준은 경학원 부사성 안인식 등과 함께 “황도정신을 기틀로 유동의 진흥을 도모”하기로 결의한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0년 이후에도 그는 국민총력조선연맹(1940),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1941), 임전대책협의회(1941), 조선임전보국단(1942) 등 친일단체에 차례로 가담한다. 그는 1941년 유림 주도로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주관했고 1943년에는 마침내 조선유도연합회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일제가 광복 직전인 1945년 4월 3일 조선인 중에서 7명의 일본 제국의원을 선임하는데 그가 1인 중에 포함될 만큼 큰 공을 인정받았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행적을 보인 노기남은 천주교를 대표하는 친일파이다. 친일파 명단에 포함된 천주교 인사 중 유일한 주교이기도 하다.

한국 최초의 주교인 노기남은 1902년 평양 독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1930년 신학교 졸업 후 종현성당 보좌신부 겸 계성보통학교의 운영을 담당했다. 본당신부 경력 없이 12년 만에 경성대목구장(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이 되었고 같은 해인 1942년 한국인 최초로 코르바사(Colbasa)의 명의주교로 서품되었다.

그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천주교 경성대목구가 참가했을 때 장면과 함께 연맹의 업무를 담당하며 일제에 협력했다. 종현성당 보좌신부와 경성대목구장, 조선인 주교로서 근무하는 동안 성직자와 신도들에게 일본군 장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전쟁 승리를 위한 미사를 거행하도록 하였고, 국방헌금을 걷고 신부들에게 시국과 관련된 강연을 하도록 주관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즈음 그는 창씨개명을 했는데 오카모토 가네하루이다.

1940년에는 황기 2600년 봉축식과 함께 국민총력천주교경성연맹을 결성하고 노기남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연맹은 기관지 <경향잡지>를 통해 내선일체의 실현과 국가에 대한 열사봉공을 위해 단체를 결성했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애국반이라는 기본단위로 신도 조직을 결성해 신사참배 강요에 호응하고 국방헌금을 낼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 1943년에도 그는 조선전시종교보국회에 천주교회 대표위원으로 참가한다.

그는 광복 이후에도 친일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1949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기관과 학무국장을 지내며 학병권유 강연을 책임진 악질 친일파 엄창섭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을 때 간접 석방운동을 벌이고 출옥한 후 영세를 받게 해 세간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민족대표 33인 출신으로 조선 감리교회 수장에까지 올랐던 친일 목회자 정춘수가 교단 내부의 비판으로 입지를 잃게 되자 노기남이 권유하여 천주교로 개종시키기도 했다.

김수환 추기경 등 천주교 내부에서는 노기남의 일제 강점기 활동은 적극적인 친일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한국 천주교회 대표로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그를 변론하기도 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의 종교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불교계의 이완용으로 불린 인물은 이회광이다. 1850년 강원도 설악산 아래에서 출생하여 19세에 출가했다. 설악산 신흥사에서 정함 스님에게 득도한 뒤 건봉사에서 보운스님의 법통을 이었다. 이후 서울 도봉산 윤월사로 옮겨오면서 궁중 상궁들과 밀착하며 권승으로 변신한다. 이와 같은 그의 배경 때문에 한일병탄 조약 체결을 앞두고 친일성향의 불교연구회는 1908년 원종이라는 종단을 창설해 이회광을 초대 대종정으로 추대했다.

이때부터 친일 행적을 보이기 시작한 이회광은 일진회장 이용구의 권유에 따라 일본인 승려 다케다 한시를 원종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1910년 한일병탄이 이루어지자마자 일본의 소토슈(曹洞宗)와 연합을 추진했다. 연합 체결은 1910년 10월 6일에 성사되었으며, 이날부로 조선불교가 일본불교에 병합된 셈이었다. 그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보이는 일본 승단을 설득하여 불교병합을 위한 조인식을 체결하고 돌아와 이후 ‘불교계의 이완용’으로 불리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이듬해 사찰령을 발표하여 이회광이 추진한 소토슈와의 연합은 부결하였으나 그를 해인사의 주지로 임명했다. 그는 사찰령에 따라 통폐합된 30본산 연합체의 대표격인 주지회의원 초대 원장도 함께 맡았다.

이회광은 이후 1914년에는 친일단체인 불교진흥회를 조직하고 경술국적 중 한 명인 조중응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열성적인 친일 활동을 벌였다. 1917년에는 광범경(괴승), 권상로(초대 동국대 총장) 등 다른 친일 승려들과 함께 30본산연합 일본불교시찰단에 참여하여 다시 일본을 시찰한다. 이들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현금으로 여행 경비를 받았으며 조선에서 떠날 때는 이완용이 전송하고 일본에 도착해서는 조선총독을 지낸 일본 총리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초대를 받는 등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1919년 3·1 운동 직후에는 일본불교와 조선불교 임제종을 합병하고자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정부의 고위관료들과 접촉하고 돌아와 합병을 추진했으나 국내 젊은 승려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해인사 승려들이 이회광의 사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여 1924년 결국 해임사 주지 자리에서도 밀려났다. 이회광은 결국 갈 곳 없이 한 상궁이 마련해준 작은 거처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2008년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포함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들어 있다.

감리교 황민화의 앞잡이는 양주삼 감독이다. 1879년 평안남도 용강 출생인 그의 창씨개명은 梁原柱三이다. 1915년 조선감리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3인방 중 하나였다. 1930년 12월에는 기독교조선감리회로 개칭 후 첫 번째 조선인 감리교 총리사(감독)로 피선된다.

그러나 그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본격적인 친일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1937년 7월 26일 서울YMCA에서 개최된 시국연설회에 감리교 대표로 ‘오인의 취할 태도’를 연제로 나섰다. 8월에는 총독부 학무국이 주관한 전국순회 시국강연 강사로 참가하였고, 1939년 8월

에도 국민정신충동원조선연맹 주최로 전국순회 친일 강연을 했다.

천주교와 함께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감리교는 자진해서 신사참배에 굴복함으로써 장로교나 다른 교파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1938년 2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양주삼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인 동시에 황국신민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선일체를 실행하고자 합니다.”라고 설교했다. 같은 해 9월 3일 감리교는 양주삼 총리사 명의로 신사참배여행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한국 개신교회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양주삼은 1938년 10월 5일 목사와 신도 7천여명을 모아 “황국신민의 입장에서 기독교도로서의 애국일 행사를 엄숙히 거행하고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했다. 이어서 장사진을 이루어 총독부를 방문하여 만세삼창을 한 후에 조선신궁을 참배했다. 그는 1939년 회갑을 맞았는데 부인과 함께 회갑연 비용 중 100원을 국방헌금으로, 나머지는 사회사업에 희사하였다.

양주삼은 광복 직후 목회활동을 하다가 황민화 정책에 앞장선 죄목으로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난다. 그는 1949년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출범 당시 초대 총재로 선출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실종되었으며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모두 포함되었다.

부인 양매륜 장로는 YWCA이사를 역임하는 등 선교사업에 힘을 쓰다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서울시립병원장을 역임한 아들 양요환과 소프라노로 유명한 며느리 박영덕, 그리고 필라델피아 콥스대 교수이자 메조소프라노인 손녀딸 양경자 등 후손을 남겼다.

부끄러운 종교인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단절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도 없다.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1980년 5월, 2016년 5월



성희연
청년독립군 대표

김남주의 <학살2> 中

...

오월 어느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날 낮이었다

낮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이민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민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낮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낮 12시였던가

오월 어느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별집처럼 쭈셔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문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

저번 회보에 처음 인사드린 청산되지 못한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생? 청년 역사단체 '청년독립군'입니다. 이번에도 저희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 청년독립군의 주요활동 중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역사기행입니다. 책이나 글을 통한 세미나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기행은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5월을 맞아 '5.18 광주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독립군이 보고 느끼고 온 1980년 5월과 그리고 현재 2016년의 5월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5월 18일 즈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모입니다. 이번에 광주에 간 청년독립군 회원들 대부분은 '5월 광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왜 광주를 가니?' 라고 물어보면 광주에 대해 잘 알고 싶어서 간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겪은 광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그저 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의 묘역을 순례며 들은 열사들의 이야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말로, 글로, 사진으로 접하며 저희가 겪은 광주는 슬픔이었습니다. 남편을 마중 나간 평범한 임산부였던 최미애 열사, 친구들과 개천에서 놀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신 방광범 열사, 부상자들에게 헌혈을 하러 가다 희생당한 여고생 박금희 열사, 죽음을 예견했으면서도 마지막까지도 도청을 사수하셨던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열사들. 일일이 셀 수도 없는 참혹한 죽음과 그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는지를 들으며 그분들의 희생과 목숨을 걸면서 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정신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18 희생자들이 안장된 신묘역과 노동,민주,학생 열사들이 잠든 원묘역을 순례하고 그 뒤에 저희는 5.18민주화운동의 생존자 선생님 한 분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래로, 글로 전설처럼만 배웠던 윤상원 열사와의 일화를 추억하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생존자 선생님의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울었습니다.

아직도 그 분의 가슴속에서는 1980년 5월의 광주가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열사들의 바람대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끝까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그동안 매년 5월, 올해로 네 번째 광주를 갔던 저는 말로만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외쳤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피해 받은 이들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2000년 독일 정부에서 세운 재단의 이름은 '기억, 책임, 미래' 라고 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여 그 책임을 가려내고 미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5.18민중항쟁으로 만들어진 87년 6월혁명과 그로 인한 직선제 쟁취, 87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5.18 희생자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최소한의 방법은 바로 그 분들을, 그 날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18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일베나 보수정치인들은 5.18이 폭동이었으며 북한

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망언들과 학교에서의 빈약한 현대사 교육은 중?고등학생과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도 5.18은 폭동이라고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끝까지 남았던 26인이 바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잊지 말아 달라, 기억해 달라'는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날의 광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5.18광주항쟁이 민주화운동이나 폭동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나가려고 하는 불씨가 아직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를 갔다온 저희 회원들의 소감을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날 희생된 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왜 난 지금까지 몰랐을까.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광주 기행을 마치며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광주 열사분들을 기리며 열사분들이 이룩해낸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가 됐다고 열사분들에게 떳떳해질 그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중앙대 철학과 1학년 새내기 김지은

광주 5.18 국립묘지에는 10개의 촛대가 서 있습니다. 각 촛대에는 12간지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 쥐와 돼지는 없습니다. 80년 5월 21일 1시 계엄군의 시민들을 향한 집단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아직까지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다는 의미에서라고 합니다. 언젠가 10개의 촛대가 12개가 되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청년독립군 페이스북 페이지 : www.facebook.com/Minjokuniv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202-406-283 (예금주 : 민족문제연구소)

청년독립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 청년독립군의 활동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저희 활동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대학생들의 순수 회비로 운영하다보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청년들이 활동에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건



이 만 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잔인한 달' 4월, 희비를 가르는 일들이 유난히 많다. 제주 '4·3사건'과 '4·16세월호사건'은 화해로 승화시켜야만 할 비극이다.

'4·11'과 '4·19'는 희망의 상징,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창건일이고 '4·19'는 반독재 민주혁명의 날이다. 두 날은 민주한국을 가능하게 했고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토대가 되었다.

1919년 4월 10일 오전 10시, 손정도 등의 제의로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13도 대표 29명이 모였다. 이 무렵 상하이에 있던 1,000여명의 교민은 한 달 전부터 진행되는 3·1독립운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날 모임은 임시의정원이라 명명했고 의장에 이동녕이 선임되

었다. 모임의 목적은 3·1독립선언을 구체화하는 것. 독립을 선언했으니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 밤새 토론 끝에 그 이튿날(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어서 '민주공화제' 규정을 포함한 10개항의 임시헌장을 채택해 정부를 구성했다. 대한민국의 탄생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은 1910년에 망한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다시 찾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국'을 세운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해서다. 국망 후 초기의 독립운동은 왕조 회복을 의미하는 복벽(復辟?)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주권행사의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는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을 계기로 주권재민 사상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3·1독립운동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려는가'라는 일제 재판관의 질문에 "우리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기미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자 나라를 운영해 갈 임시정부가 여러 곳에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정부와 서울의 한성정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상하이 임정의 내무총장으로 부름 받은 안창호는 상하이에 도착해 다른 지역의 임정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그 결과 1919년 9월 11일 서울의 한성정부를 법통으로 하는 통합임시정부를 재출발시켰다. 통합임시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나 이승만의 탄핵 이후 국무령제, 주석제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2년 윤봉길의거를 계기로 피난길에 올랐다. 1940년 중경에 이른 임시정부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의 정당정치를 수행했고 좌파세력과 제휴하여 좌우연합정부를 수립, 명실공히 독립운동의 영도기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임정 산하에 둔 광복군은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등지에서 연합군과 항일공동작전을 수행했고 국내에 투입할 정진대의 훈련이 끝날 무렵 해방을 맞았다.

최근 어느 고위공직자가 임정은 정부가 아니라 운동단체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발언은 뉴라이트들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면서 자주 사용해 왔다. 좌우 정당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임정은 중국에서만 네 차례에 걸쳐 개헌한 헌법을 갖고 있었고, 그 헌법에 따라 의정원과 정부를 두었으며, 외교활동을 벌였고, 산하에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제헌헌법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정)을 계승하여 민주독

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했고 현행 헌법 또한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임정은 일제의 폭정 아래서 독립운동의 상징이었고 겨레의 희망이었다. 헌법에까지 그 계승이 명시된 3·1운동과 임정은 그 뒤 친일세력 때문에 홀대 받았다. 3년 후 100년이 되지만 기념탑이나 기념관조차 없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100주년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기념탑과 기념관이라도 제대로 건립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이 역사에 대한 도리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에펠탑은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돼 그 역사적 상징성을 뚜렷이 부각시켰다. ‘미국 독립운동 못지 않은 3·1혁명’과 ‘대한민국 100주년’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시대가 민주한국을 자랑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제다. 

※ 위 글은 필자의 동의 하, 2016년 4월 11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전재한 것입니다.

감자골 양양의 민족 교육자 ‘조화벽’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삼월하늘 핏빛으로 물든
아우내 장터 비극
천애고아 된 시동생 거두며
불처럼 솟구치던 가슴 속
용암 덩어리

만세운동 현장에서
가슴에 총 맞고

선혈이 낭자하던 시부모님
끝내 숨지고

떠나온 고향땅 양양에서
아우내 솟구치던 애국혼
다시 되살려

삼일정신 올곧게
민족학교 이어간
그대는
양양 독립의 화신이어라

조화벽 애국지사(1895.10.17 ~ 1975. 9. 3)

조화벽 애국지사는 유관순 열사의 오라버니인 유우석과 결혼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개성의 호수돈여학교를 다니던 중 1919년 3월 졸업을 앞두고 개성의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이후 공주 영명여학교 교사로 부임했는데 이것이 유관순 집안과의 인연이 된 것이다. 영명학교로 부임하고 보니 당시 만세운동으로 유관순 부모가 현장에서 순국하고 유관순 역시 잡혀가 있었으며 유관순의 오라버니인 유우석도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천에 고아가 된 유관순의 어린 두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이에 조화벽 애국지사는 이들을 친 동생처럼 돌보았다. 유우석 애국지사와 결혼한 뒤에는 한때 원산 진성여고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남편은 비밀결사대인 원산청년회를 만들어 독립운동에 합세했다. 1932년 조화벽 애국지사는 고향 양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정명학원(貞明學園)을 설립하여 교육에 뛰어들었으며 피폐한 농촌의 학생을 모아 문맹을 떨치고 민족교육을 실천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영화 <귀향>, 과거에 대한 씻김굿과 내일을 위한 대화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최근 개봉한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2015)은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제작부터 상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화제들을 만들며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영화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존재를 다시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우리는 관객이자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영화가 말하는 위안부들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와 함께 현재의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귀향>의 제작노트에 따르면 감독은 2002년 당시 위안부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에서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처음 시나리오를 썼다고 한다. 이후 오랜 기간 영화 제작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다시 2014년 영화의 취지에 공감한 배우들의 자발적인 출연 의사와 인터넷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제작비 모금에 힘입어 마침내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다.

영화는 영화의 배급 과정에서도 제작 과정만큼이나 많은 사연들을 만들었다. 2015년 12월 첫 시사회 이후 독립영화로서 상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객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나갔고, 마침 피해자들까지 배제하며 줄속적으로 발표된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영화 <귀향>에 대한 관심은 더



욱 커졌다. 결국 이에 힘입어 꾸준히 관객을 끌어들이며 지난 3월까지 누적 관객 수 3백만 명이라는 독립영화로서 놀라운 흥행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먼저 영화는 1943년 아직 철없이 어린 소녀 정민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되어 낯선 타지로 보내진 정민은 한 살 터울의 친구 영희를 만난다. 하지만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들이 도착한 곳은 전장의 군인들에게 몸을 바치는 군위안소로써 그녀들 스스로 지옥이라고 부르게 될 곳이었다.

그리고 1991년, 영화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써 위안부의 존재가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진 때로 돌아온다. 소녀 은경은 끔찍한 사고를 겪은 후 큰무당 송희에게 맡겨져 무당 수업을 받게 된다. 은경은 우연히 생존해있던 영희를 만나고, 영희가 지니고 있던 노리개를 매개로 과거 정민과 영희가 겪었던 아픔을 다시 체험하게 된다.

영화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시간대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된다. 과거의 정민과 영희는 군위안소의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쓴다. 현재의 영희는 은경을 통해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얻고, 정민과의 오랜 약속을 다시 떠올린다. 영화의 중반부 신내림을 받은 은경은 정민과 영희를 위한 씻김굿을 펼친다. 그 둘의 그리고 수많은 위안부들의 아픔과 설움을 위로하면서 이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그들의 혼을 맞이하며 영화는 결말을 맺는다.

이 영화는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이 영화 <귀향>의 모티브라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다. 강제 동원의 과정이나 군위안소의 열악한 환경, 무엇보다 위안부들을 성적 도구로만 여겼던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영화는 매우 사실적인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었다. 감독 역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영화를 만든 까닭을 ‘문화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또한 <귀향>을 보러 온 많은 관객들 역시 마치 그 증거를 직접 목격하고자 하는 다짐을 갖고 영화관을 찾아왔을 것이다. 분명히 영화를 통한 역사의 간접적 경험은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영화들을 어떠한 태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역시 조심스러운 질문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영화라는 매체는 시각적인 재현을 통해 관객들에게 사건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는 영화에서 관객들은 자신이 보고 듣는 바를 과거의 재연과 동일한 것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극영화는 물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고증의 수준이나 재구성과 같은 연출적인 개입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보는 영화의 스크린 위에는 언제나 한 껍질 연출의 층이 있는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영화를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오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영화의 이야기로부터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기도 어렵게 된다. 그리고 영화의 의미를 완결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다른 의미의 해석이나 대화의 가능성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영화 <귀향>이 잊혀지고 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자칫 불가역적인 것으로 정리되었던 한일 합의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만들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영화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입장이 마련되었고,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일본과의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우익 언론에서는 영화 <귀향>을 그러한 맥락에서 비판하였다.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허구를 구별하지 못한다든가 영화적 평가와 별도로 민족감정을 앞세운 흥행이라는 식으로 관객들의 반응을 깎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비판이야말로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묵은 논쟁의 반복과 계속되어온 평행선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입장 차이만을 강조하며 대화를 닫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일일 것이다.



▲ 영화 <귀향> 중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수용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이고, 영화 <귀향>에 대해 많은 관객이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문화적인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향>이 하나의 '문화적 증거'가 된다면 그것은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관계의 문제를 밝히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한일 간의 위안부 논쟁이 동시대적인 증대함과 만료되지 않는 시효를 간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진실된 사과를 받기 위해서나 정당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하나의 논의의 장으로 서로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본과 대화를 시작하는 어려움을 마주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다시 지난한 소통과 단절의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귀향> 이전, 우리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화제는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2013)를 둘러싼 논란과 명예훼손 시비였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지배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바라보며 갈등의 다른 원인들과 새로운 해법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이 재구성하는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억과는 꽤나 큰 괴리를 가지며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결국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로 비화하여 저자에 대한 민형사소송까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옹호와 비판의 문제를 떠나서 책의 문제점과 흠결에 대한 논의가 공론의 장이 아닌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안타깝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틀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같은 당사자 입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며, 마치 다른 이론의 여지없이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먼저 검증하려는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 자신 역시도 지금까지의 평행선 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이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에도 불구하고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그녀들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용기였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

은 대화의 공간으로 끌어내고자 원한다면 그것은 고통과 설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용기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나아가 20세기의 폭력적인 역사 일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 일본과 함께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참고로 이미 일전에 소개했던 바와 같이, 비록 <귀향> 만큼의 흥행은 없었더라도, 역사적 쟁점으로서나 사회적 소수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루어낸 영화적 시도들이 계속 있어왔다. 1995년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연작과 제일 위안부 송신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2009)가 대표적인 영화들이다. 특히 권효 감독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2012)은 위안부 할머니를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판을 하고자 했던 권윤희 작가와 한일 출판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일 양국 간의 소통의 필요성과 함께 그 어려움을 역시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 영화 <귀향>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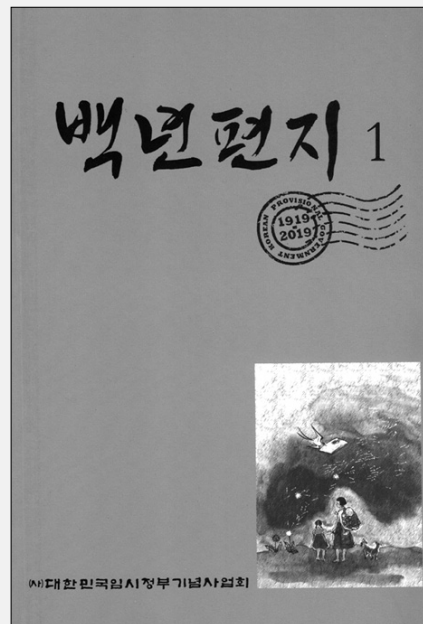




백년편지 1.

-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1919-2019)을 맞아 쓰는 편지

• 발 행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쪽 수 | 351쪽



“할머니, 오늘, 임시정부 생일을 맞아 할머니께서 남긴 책 《장강일기》를 펼쳐 들어요. 다시금 읽어도 할머니 품에 안겨 처음 만났던 생동하는 독립운동 이야기들이 장강의 도도한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어요.” 이는 《백년편지 1》 첫 편지글의 한 토막으로 독립운동가 김의한·정정화 선생 손녀 김선현 씨의 글이다. 그런가하면 《백년편지 1》에 실린 60통 편지 가운데 마지막 글은 “80여 년 전 이역만리 중국대륙에서 영화 황제로 등극하셨으면서도 돈과 부귀영화의 유혹을 뿌리치고 항일영화, 민족영화에 투신하신 선생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라는 글로 이는 동양예술극장 유인택 대표의 편지 일부이다.

《백년편지 1》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주최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년(2019)을 맞아 지난 2010년 4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3일까지 일반인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쓴 편지글이다. 이 편지는 편지 대상에게 직접 발송하는 편지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이라는 우편함을 통해 올린 글로 2010년 백년편지가 시작된 이래 지금(2016.3)까지 235통이 발송되었다. 발신자들의 면면을 보면 독립관련 기념사업회 등 유관단체 관련자(34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34명), 독립운동가 후손(27명), 교수(23명), 역사학자(22명), 고등학생(3명), 초등학교(2명), 중학생(1명), 기타(74명)이다.

《백년편지 1》에 실린 편지글 가운데 일부 후손들의 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물론 가계에서 비장(秘藏)하고 있는 전승들도 내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부의 일반 독립운동사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 가문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자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는 “앞으로 백년편지라는 대화를 통해 그 동안 뼈대만 세워져 있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살을 붙이고 피를 흐르게 하는 생명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백년편지의 주인공들이면서 우리의 역사와 삶을 풍요하게 만들 주인공을 발굴하여 우리 겨레의 숙원인 자주독립 통일 민주 국가를 이룩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머리말에 썼다.

“옥돌은 가루로 만들어도 색을 변하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조선인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아버지의 제자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하지만 지금도 또렷하게 아버지에 대해 회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조선인들은 옥처럼 푸른빛을 간직한 채 험난한 일제강점기를 헤쳐 나와 기필코 조국을 되찾았으며 아버지가 바라던 8·15 광복을 맞아 학교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를 때 저는 겨우 5살이었습시다.” 이는 민족교육의 선구자 학산 윤운기 선생의 둘째 따님인 윤종순님의 편지 가운데 일부이다. 이처럼《백년편지 1》에 실린 글들은 그 자체가 한편의 소설이요, 시이자 겨레의 험난한 세월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통한의 역사이다.

올 4월 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7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날로 잡혀 있어 세계 식민지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일제에 맞서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저항하며 광복을 위해 분투했던 임시정부 수립의 깊은 뜻을 자칫 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백년편지 1》의 펴냄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이 한 권의 책속에 녹아든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백년편지의 주인공들을 통해 만나보는 감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 《백년편지 1》은 비매품입니다. 본회 ‘백년편지’에 참여해주신 필자 분들 중 책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회에 연락바랍니다. 02)3210-0411



거리에서 국정 교과서를 묻다

- 시민 학생과 함께하는 거리 역사 강좌

- 지은이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기획), 이만열, 한상권, 이준식, 조광, 한철호, 안병우, 이동기, 이이화, 김육훈
- 출판사 | 민족문제연구소 • 쪽 수 | 271쪽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현장 보고서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출간

왜 역사학자들은 거리로 나섰다? 지난 겨울 역사를 전공하는 원로 학자와 중진 교수들은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 강의를 이어갔다. 이들을 강의실에서 길거리로 내몬 주범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정권이었다.

2014년 정권의 노골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뉴라이트 계열의 교학사 고교 한국사(이하 교학사 한국사)가 검정절차를 통과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이승만 박정희 등 특정인물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위인전이다 현대 정치사의 주요한

문제를 모두 북한 탓으로만 돌리는 기형 중북주의 역사책, 엉터리 통계와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표절과 오류투성이의 역사책이라는 등 온갖 오명을 입고서 교학사 한국사가 탄생한 것이다. 교육부가 교열부라는 오명까지 감수하며 갖은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덕분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노골적으로 지원했음에도 학교 보급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뉴라이트의

완전참패로 끝났다. 뉴라이트에게만 압도적인 특혜를 부여한 경기였음에도 완전참패로 끝나자 정권은 아예 경기판을 갈아엎어버렸다. 2015년 1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역사 국정화를 언급한 이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온갖 탈법, 불법을 자행하며 결국 11월 3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를 확정 고시하였다.

이에 8월, 교학사 한국사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주도하여 전국 480여 개 학술·교육·시민단체가 하나로 결집하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상임대표 한상권, 이하 국정화저지넷)를 출범시켰다. 출범 이후 국정화저지넷은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 거리 선전 및 전시회, 천막농성, 홍보동영상 제작, 범국민대회 개최, 헌법소원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해 11월초 여론조사에서 53%의 국정화 반대여론을 이끌어냈다.(찬성 36%)

그러나 정권이 국정화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자 국정화저지넷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역사학계의 국정화 반대 의지를 전달하고 국정화 반대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2015년 11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역사학계의 저명한 원로·중진 교수들을 초빙해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거리역사강좌」를 진행하였다.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는 칼날 같은 찬바람을 맞으면서 진행된 명강의를 묶어 책으로 펴낸 것이다. 치열한 문제의식과 불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바람직한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위한 강연자들의 고민들이 잘 드러나 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3·1혁명 97주년을 맞아 기획하고 펴낸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현장 보고서이다.

책 제목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에서의 ‘묻다’는 중의적 표현이다.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묻는다’는 ‘질문’의 뜻과 ‘국정교과서를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매장’의 뜻을 함께 갖고 있다.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1~3장은 국정화론자들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4~5장은 국정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6~7장은 다른 나라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8~9장은 전통시대 역사교육에 대한 이해와 미래 역사교육 방향의 모색을 다루었다. 아울러 부록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장전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안인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20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문을 요약한 국정교과서 고시가 위험인 이유 10가지(2015)가 수록되어 있다.



각 강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강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인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인가」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논란이 된 1948년 건국설에 대해 헌법 전문(前文), 『관보』 제1호의 대한민국 연호, 이승만의 1948년 당시 연설문 등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철저히 논박하고, 추후에 있을 교과서 내의 1948년 건국 기술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2강 헌법이 증언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헌법에 비추어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는 뉴라이트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질서, 사회국가원리, 재산의 사회적 의무성을 규정한 제헌헌법의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추구할 미래가치”임을 강조한다.

「3강 국정교과서가 지우려는 독립운동사 이야기」는 독립운동이 민족공화제와 균등경제를 지향했음을 알리고 통일과 연대의 관점에서 독립운동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독립운동을 축소·왜곡하려는 국정화 시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4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이유로 독립운동의 가치 약화, 친일파 미화, 군부독재 미화, 분단체제 고착, 전체주의적 사상통제 등을 들었고 민주주의 후퇴와 국격 추락 등 국정화가 초래할 결과를 예시하면서 국정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5강 한국사 검정교과서 과연 편향적인가」는 2013년 검정에 통과한 7종의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규정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교과서 서술원칙을 무시한 비판임을 입증한다.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한 과거 국정교과서의 사례를 들면서 국정화 반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6강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로 한중일 3국의 과거사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인식과 대응을 들면서 3국 정부가 역사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역사교육과 관련한 3국 간의 활발한 민간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7강 국정화가 ‘전체주의’ 다: 독일역사교과서 이야기」는 나치 독일과 동독의 전체주의시기 역사교과서의 특징, 다원주의와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통용되던 서독의 역사교육, 인가제와 자유발행제가 공존하는 현재 독일의 교과서발행제를 설명한다. 끝으로 독일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집단적 학습과정’을 통해 비판적 역사의식을 키우는 독일 역사교육계의 흐름을 소개한다.

「8강 왕조시대의 역사교육은 어떠하였나」는 중화의식에 젖어 자기 역사와 문화를 배우지 않았던 조선조 교육의 폐단, 정치권력으로부터 역사기록의 훼손과 왜곡을 막고자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한 사관제도,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와 문화를 찾고자 애썼던 선조들의 노력을 진솔하게 알려준다.

「9강 역사교과서의 대안을 탐색한다」는 올바른 교과서가 가능한가, 역사교육은 애국심 함양교육인가, 성공한 대한민국이란 서사가 숨기는 것 등 교과서에 관한 여러 의제를 정리하고 대안교과서운동을 짚어본 다음 우리가 지향할 역사교육과 교과서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한다.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도전에 대한 역사학계의 응전”이라 할 수 있다. 역사학계는 이 책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획책 의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설 등 그들이 주장하는 긍정사관의 실체와 허구성을 낱알이 파헤치고 이를 비판하는 역사자료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독일의 역사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역사교과서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에 대비하여 양식 있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쓸모 있는 무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

- 피와 순수의 시대를 살아간 항일독립운동가 19인 이야기

• 지은이 | 안재경 • 출판사 | 인문서원 • 쪽 수 | 396쪽



김원봉, 박헌영, 김무정, 이재유, 박진홍, 정철성…….

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항일독립운동의 반쪽만
알고 있다!

식민 지배, 한국전쟁, 외세의 간섭과 분단……. 우리 근현대사는 슬프다. 압축적으로 슬프다. 불과 100여 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억울한 피와 원통한 눈물의 파도가 온 나라를 덮쳤다. 너무 힘든 현실은 도피를 부르듯이, 너무 비극적인 역사도 외면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우리 근현대사는 막상 접하려면 마음이 불편하다. 케케묵은 이데올로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 현대사를 있는 그대로 읽기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항일독립’에 초점을 맞춘다. 한마디로, 모두가 ‘예’라고 일제에 굴종할 때 ‘아니요!’라고 분연히 떨쳐 일어난 이들의 이야기다. ‘친일이나 항일이나’의 갈림길에서 망설임 없이 항일을 택한 용감무쌍한 이들의 이야기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독하게 맞서 싸운 항일 전사들의 이야기다.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댄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에서 이데올로기는 항일투쟁의 도구에 불과하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일제와 맞서 싸운
‘조선의 체 게바라’와 ‘조선의 로자’ 이야기!

박헌영, 이관술, 이주하, 김형선, 이승엽, 홍남표, 김삼룡, 이현상, 이순금, 김무정, 권오직, 홍덕유, 이강국, 임화, 박진홍, 김명시, 최용달, 정철성, 김원봉.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는 꽃다운 청춘은 물론, 평생을 항일독립운동에 바친 항일독립운동가 19명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훑어간다. 그런데, 잠깐. 위에 제시한 19명 가운데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로, 일제에 복종만 하면 보장받을 장밋빛 미래와 안락함을 버리고 수배와 혹독한 고문, 고된 감옥살이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삶을 택한 그들의 존재를 왜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을까? 얼마 전 영화 「암살」에서 이름을 알린 약산 김원봉이나 ‘한국의 체 게바라’로 불리는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정도나 귀에 익숙까, 또는 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헌영이나 임화 정도나 알까. 조국의 해방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죽기까지 했는데, 정작 해방된 조국에서 그들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져버린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반증한다.

그래서 지은이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제에 맞서 싸운 그들의 생애를 기록해두고 싶은 마음”에 19명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존경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렇다고 숭배해야 할 만큼 위대한 인물들이었을 리가 없다.”라며 ‘개인 우상화’나 ‘맹목적인 찬양’은 단호히 경계한다. 그들의 양지만을 비추지도 않는다. 이야기의 서막을 장식하는 박헌영에 대해서는 ‘가장 비타협적으로 일제와 싸운 조선공산당의 1인자’인 동시에 ‘한국전쟁을 일으킨 수괴’라는 평가를 빠뜨리지 않고, 중국공산당도 인정한 ‘최고의 무장’으로 이름 높았던 김무정에 대해서도 ‘팔팔하고 성격이 급해 함부로 처신했다’며 공과 과를 냉정히 분석한다.

우리 현대사의 진실, 알아야 산다!
영화보다 극적인 독립운동의 눈부신 순간들

노선이나 철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19명의 항일독립운동가들을 지배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강자들에게겐 간간하고 비타협적이었지만 약자들에게겐 한없이 약한 휴머니스트였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은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는 한없이 강했지만 정치투쟁 앞에는 속절



없이 약했다. 그리하여 뒤틀린 남과 북의 정치사는 이들 대부분에게 ‘숙청’이라는 참혹한 운명을 선물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피’와 ‘순수’의 아이콘들에게 바치는 뒤늦은 진혼가다. 지은이는 후대인 우리가 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준다. 이데올로기를 떠나 힘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4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평등의 가치를 체계화하여 자본주의의 야만성과 투쟁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공과 과에 더해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를 기억하는 것이 풍성한 역사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후대가 잃어버려서도, 잊어버려서도, 홀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일 것이다. 만주 별관 말 달리며 일본군을 상대로 통쾌한 일전을 벌이고, 폭탄을 던져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10여 년씩 일제의 감옥에서 썩으면서도 오로지 조국 해방의 의지를 불태웠던 그들, 뒤틀리고 엄혹한 시대에 온 몸을 던져 찬란하게 부서져버린 이 ‘독립운동 영웅’들의 젊은 날의 초상은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우리 현대사에 대한 전혀 새롭고 눈부신 자부심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는 회피하고픈 비극과 분단과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고귀한 명분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피와 순수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에.



대한민국 악인열전

— 교과서에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

• 지은이 | 임종금 • 출판사 | 피플파워 • 쪽 수 | 228쪽



고향 사람 200명을 무참히 학살한 이협우
일제시대 고문기술 70%를 개발한 노덕술
민간인·부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김종원
일본 국회의원이 된 강패 출신 친일파 박춘금
안두희를 ‘안 의사’로 불렀던 이승만의 양자 김창룡
일제가 동상까지 세워 준 친일파 김동한
어린 학생도 고문한 악질 친일헌병 신상묵, 박종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고, 기존 역사책에서도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다.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한 사람들조차 스쳐 들은 이름일 따름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온갖 패악질을 일삼았던 그들의 뿌리를 캐봤다. 역시나 일제 때부터 악질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다. 상상을 뛰어

넘는 그들의 가공할 만한 악행을 역사의 법정에 세운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후세에도 전해야 한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모든 게 상상 그 이상이다”

이 책은 지난 2015년 여름 누리꾼을 분노케 한 경남도민일보 뉴스펀딩 기획 ‘광복 70년 잊지 말아야 이름들’을 기초로 썼다.



한국근현대사는 살육과 배반, 참혹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시대였다.
무수한 사람이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단죄 받지 않고 넘어갔다.
그 가운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8명을 역사전공 기자가 고르고 골랐다.

이들은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어린 아이도 죽였고, 자기 부하도 죽였다. 화풀이를 하거나 장난 삼아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이들은 그냥 친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일제마저 그들의 숨씨와 노력에 눈물을 흘릴 정도였고, 조선인으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지위와 호사를 누렸다.

이들은 그냥 출세를 한 것이 아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 중용 돼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위에 올라 세상을 떨게 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친일과 학살, 고문, 음모, 공작, 불의를 생생하게 목도하는 순간 당신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 책 속으로 -

이협우 학살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온 가족을 몰살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훗날 보복을 우려한 행동으로, 어린아이도 철저히 죽였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10세 미만 어린이 35명이 피살됐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자를 동시에 쏘 죽이기도 했다. 1949년 12월 25일 성탄절 노곡리에서 살해당한 최상화와 최동식은 불과 8살, 4살이었다. 이협우는 그들이 빨갱이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였다.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빨갱이를 죽였다’고 하면 넘어가던 시대였다.

(본문 48~49쪽)

“증거상 드러난 피고인들의 죄과...

이협우 학살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온 가족을 몰살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훗날 보복을 우려한 행동으로, 어린아이도 철저히 죽였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10세 미만 어린이 35명이 피살됐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자를 동시에 쏘 죽이기도 했다. 1949년 12월 25일 성탄절 노곡리에서 살해당한 최상화와 최동식은 불과 8살, 4살이었다. 이협우는 그들이 빨갱이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였다.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빨갱이를 죽였다’고 하면 넘어가던 시대였다.

(본문 48~49쪽)

“증거상 드러난 피고인들의 죄과에 대하여 형법상 사형보다 더한 극형이 있다면 본 검사는 서슴지 않고 그 극형을 택할 것이나 부득이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이협우 학살 사건을 조사한 이영호 검사의 논고

(본문 58쪽)

“하판락이 이미경의 혈관에 주사기를 삽입했다. 그리곤 혈관을 통해 주사기 하나 가득 피를 뽑아낸 하판락은 다시 그 피를 고문 피해자인 이미경을 향해 뿌렸다. 증언을 거부하면 또 주사기로 착혈한 후 고문 피해자의 몸이나 벽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중략...)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내가 고문당할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이가 고문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본문 139쪽)

김창룡은 축구를 좋아했으며, 특무대(현 기무사) 축구팀에 국가대표 출신을 넣는 등 최강의 팀으로 만들었다. 1953년 10월 특무대 축구팀은 조선방직 축구팀과 전국축구대회 준결승에서 맞붙었다. 전후반과 연장을 치렀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대회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조선방직 팀이 승리했다. 화가 난 김창룡은 “저놈들 다 집어넣어!”라고 소리쳤다. 특무대 요원들이 공포탄을 쏘며 경기장에 난입했고, 주심은 경기장 담벼락을 뛰어넘어 도망쳐 버렸다. 이성을 잃은 김창룡에게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올림픽 영웅 손기정 씨가 달려와 말했다. 그러나 김창룡은 “이놈도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본문 181쪽)

제97주년 3·1절 계기 김경순 선생 등 독립유공자 65명 포상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1일(화) 제97주년 3·1절을 맞아 철원군수를 향해 만세 시위 참여를 외치며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김경순 선생 등 65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47명(애국장 28, 애족장 19), 건국포장 8명, 대통령표창 10명이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0,497명, 건국포장 1,150명, 대통령표창 2,682명 등 총 14,329명에 이른다.

정부 포상자 명단(65명)

◆ 건국훈장 애국장(28)

김덕순 金德順 (일본방면)	박승혁 朴承赫 (국내항일)	이운봉 李雲鳳 (만주방면)
김동환 金東煥 (의 병)	박인곤 朴引坤 (의 병)	장명운 張明云 (의 병)
김만대 金萬大 (의 병)	박정문 朴正文 (의 병)	천순호 千順浩 (의 병)
김보배 金寶拜 (의 병)	박희열 朴喜烈 (일본방면)	최순보 崔順甫 (의 병)
김양준 金陽俊 (의 병)	선백중 宣百仲 (국내항일)	최순종 崔順宗 (의 병)
김유성 金有星 (의 병)	성낙중 成樂衆 (3·1운동)	최인숙 崔仁叔 (의 병)
김응구 金應九 (의 병)	손성원 孫聖元 (의열투쟁)	한신옥 韓信玉 (만주방면)
김찬경 金贊京 (의 병)	안경순 安京順 (의 병)	한진수 韓鎭壽 (의 병)
김치국 金致局 (의 병)	엄일봉 嚴一奉 (의 병)	
김치호 金致浩 (만주방면)	윤재형 尹在炯 (국내항일)	

◆ 건국훈장 애족장(19명)

김세현 金世鉉 (만주방면)	정태인 鄭泰仁 (의 병)	최병환 崔炳煥 (만주방면)
김점식 金点釁 (3·1운동)	조병철 曹秉喆 (국내항일)	최상홍 崔相鴻 (국내항일)
변윤학 邊允學 (만주방면)	조성학 趙性學 (의 병)	최선경 崔善京 (의 병)
신영학 愼寧鶴 (국내항일)	조양현 趙良玄 (의 병)	최판동 崔判東 (의 병)
오봉희 吳鳳熙 (만주방면)	조윤봉 趙允奉 (의 병)	한인수 韓仁秀 (의 병)
유공술 柳公述 (의 병)	차석록 車錫錄 (의 병)	
이성윤 李成允 (만주방면)	차정신 車廷信 (임시정부)	

◆ 건국포장(8명)

박명근 朴命根 (학생운동)	정정학 鄭正學 (의 병)	최성권 崔聖權 (의 병)
방정환 方正圀 (만주방면)	차재정 車載貞 (만주방면)	홍익선 洪益先 (의 병)
신동욱 辛東旭 (의 병)	채 오 蔡 五 (만주방면)	

◆ 대통령표창(10)

김경순 金敬順 (3·1운동)	예대희 芮大禧 (만주방면)	정치화 鄭致化 (의 병)
김달영 金達泳 (3·1운동)	이소희 李昭姬 (3·1운동)	최병현 崔炳鉉 (3·1운동)
석연극 石鍊極 (3·1운동)	이원근 李元根 (3·1운동)	
신형규 辛亨奎 (만주방면)	정문선 鄭文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추념식



광복회는 제97주년 4·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해 4월13일(수)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정부 선열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3.1운동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을 기념하고 애국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영토를 되찾은 독립정신을 미래의

국민 호국정신으로 계승하고자 ‘선열들이 되찾은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1919년 상해의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정부는 상호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한성정부의 정통을 계승하고 상해 임정과 블라디보스토크 정부의 전통도 포용하는 새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백히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백산 지청천 장군 59주기 추모식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산 지청천 장군의 59주기 추모식이 4월 14일(목)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요인묘역 지청천 장군 묘소 앞에서 열렸다.

1888년 서울에서 태어난 지청천 장군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만주로 건너가 신홍무관학교 교관,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이어갔다. 1939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선출됐고, 1940년 9월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됐다. 정부에서는 장군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 거행



국가보훈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는『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4월 19일(화)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4·19정신으로 이룩해야 할 자유와 번영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

사, 4·19혁명 관련단체 회원, 시민,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헌화·분향, 4·19혁명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광주, 경남, 충북 등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4·19혁명국민문화제, 4·19혁명을 기념하는 4·19위령제, 기념 마라톤대회, 추모제 등 다양한 계기행사가 4·19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수도권 독립운동답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수도권 독립운동답사>가 진행되며, 첫 번째 답사지는 ‘서촌’입니다. 향토사 전문가 유영호 선생이 함께하는 이번 답사에서 서촌에 서려있는 일제강점기와 이에 맞선 독립항쟁의 자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고생을 포함,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알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올해 11월까지 모두 7회가 진행될 <청소년과 함께하는 수도권 독립운동답사>는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 답사일정 :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예정)
- * 만남 일시와 장소 :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역 1번 출구
- * 참가비 : 없음
- *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 (kpgmemo@hanmail.net 박덕진), 30명 이내 정원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⑮



김동삼과 서대문형무소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 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왜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 옥중 순국 전 김동삼 선생이 남긴 유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일제하 독립운동인사 신상기록카드’를 보면 김동삼(金東三, 1878. 6. 23.~ 1937. 4. 13.(양력)) 신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1878년 6월 23일생으로 경북 안동시 임하면(臨海面) 천전동(川前洞) 278번지가 그의 고향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이름 ‘동삼(東三)’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본명인 긍식(肯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신상기록카드에는 사는 곳이 본적만 적혀 있을 뿐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불명확하다고 적혀 있다. 그는 후일 만주로 망명하였는데 아마도 함께 독립운동한 동지들을 보호하고자 자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동삼이라는 이름은 만주로 망명한 뒤에 사용한 것이며, 신장은 177cm로 적혀 있어 당시 사람들과 비교하면 매우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경성형무소에 수감되어 찍은 사진 두 장이 남아 있는데 만 55세(1933년)와 만 58세(1936년)때이며, ‘730’이라는 수인번호가 새겨진 표찰이 가슴 중앙 부분에 사선으로 적혀 있다. 얼굴과 이마에는 주름이 많아서 나이보다 많아 보여 옥중생활이 건디기 고통스러운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의 죄명은 ‘치안유지법위반’이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일제가 당시 반정부·반체제인 무정부주의·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운동을 조직하거나 선전하는 자에게 중벌을 가하도록 한 사회운동취체법이다. 이 법은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 활용되었다. 김동삼은 1931년 사돈인 이원일(李源一), 경북 영양 출신인 남자현(南慈賢)과 항일 공작을 추진하기 위해 하얼빈에 잠입했다가 일경에 피검되었는데 그 공작이 일본의 만주침공을 맞아아치는 투쟁이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경찰에 피체된 그는 모진 고문을 받으며 고생하다가 국내로 압송되었다. 김동삼의 형량은 언도관서로 기록된 신의주지방법원에서 1932년 12월 16일부터 1942년 5월8일까지 10년 형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독립운동을 하였다가 잡혀도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중형을 받지 않는데 10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김동삼 선생이 다방면에서 독립운동에 깊게 참여하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그는 신흥학교 설립 참여해 이상룡(李相龍)을 도와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힘을 쏟았다. 또한 서로군정서 가담, 경신참변으로 붕괴된 한인동포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하고 독립군 조직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서대문형무소로 옮겨진 그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경성형무소(마포구 공덕동에 있던 감옥)로 다시 옮겨져 만 59세가 되던 1937년 4월 13일(음력 3월 3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장례는 평소애 그를 존경하던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이 주선하여 치러졌다. 만주 한인사회에서 이념이나 지역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난 받지 않은 지도자가 드문데, 선생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 받지 않는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큰 인물이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6년 3월, 4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강만길	10,000	1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강연보		10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창운	10,000	10,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철	10,000	1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학노	20,000	2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창재	50,000		이학효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권오영	10,000	10,000	배다지		10,000	이해준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석준	5,000	5,000	이현진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배해원		3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광재		5,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화순	30,000	30,000
김도현		10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방인섭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홍근	10,000	10,000	서동희	5,000	5,000	임진택	5,000	5,000
김봉현	30,000	30,000	서봉수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빛나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삼웅	20,000	20,000	석혜진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신경숙	10,000	10,000	장채령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성배	10,000	10,000	신희범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숙정	50,000	5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안재웅	10,000	10,000	정철승	30,000	
김영일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희찬	100,000	
김용수	5,000	5,000	엄기남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엄승훈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윤수	30,000	3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윤영	10,000	1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영빈	5,000	
김재홍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정록	70,000	7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정인	20,000	20,000	유덕곤	10,000	10,000	조혜연		5,000
김종규	10,000	10,000	윤경자	20,000	20,000	조희환	20,000	20,000
김종성	10,000	10,000	윤종순	5,000	105,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종숙	10,000	10,000	윤종준	10,000	1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권행	30,000	30,000
김판수	5,000	5,000	이규중	30,000	3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학근	20,000	20,000	이기자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동진	20,000	2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홍수	10,000		이두희	30,000	30,000	한의석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함세웅	30,000	30,000
남만우	50,000	50,000	이상준	100,000	100,000	홍용희	10,000	1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상준	100,000	100,000	황용만	5,000	5,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상훈	10,000		황인자	30,000	30,000
노영택	10,000	10,000	이승봉		5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양순		20,000			
류동연	20,000	20,000	이영국	10,000	10,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영숙	10,000	10,000			
민항선	30,000	30,000	이영후	30,000				
박복삼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동기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인석	10,000	1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2016년 3월, 4월 특별회비

회원명	3월	4월
(주)오토 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배양숙	1,000,000	1,000,000
신윤경	500,000	5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 흡수저가 원순씨에게 묻다 > 토크 콘서트 개최

흡수저가 원순씨 에게 묻다

- 청년문제 토크콘서트

일시 / 2016년 6월 2일 4:30PM
장소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예배실

주최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독립정신답사단, 청년독립군
후원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독립정신답사단" 과 "청년독립군".

이 청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 한국사회 청년문제와 그 해법에 관한 박원순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6월2일(목), < 흡수저가 원순씨에게 묻다 >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 * 일시 : 6월2일(목) 오후4시30분~6시30분,
- * 장소 : 연세대학교 신학관 예배실
- * 주최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독립정신답사단, 청년독립군.
- * 후원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 * 참가 신청 : 선착순 250명만 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1hWu8wC5iqUKQI_HECD_FSE0jEOpvXVU7_1Apm5Rwnd_k/viewform



제 12기 독립정신

답사단 모집

답사지역 : 광주-장사-유주-계림-귀양-기강-중경

답사기간 _ 2016년 7월 15일(금) ~ 7월 21일(목)

선발인원 _ 국내외 대학(원)생 30명 내외

선발대상 _ 역사와 민족의식에 관심이 많은 남녀대학생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접수기간 _ 서류접수 2016년 5월 25일(수) ~ 6월 8일(수)

선발발표 _ 2015년 6월 10일(금) 본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_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서 접수

참가비 _ 70만원 (일체경비 포함)

기 타 _ 참가자 전원에게 답사 수료증 수여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www.kopogo.com 참조

주최 _ 대한민국의정부기념사업회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후원** _ 대학내일

대학생 No.1 미디어

